현재와 겹쳐진 오월…시간을 건너 '소년이 온다'

1, 2, 3, 4 오는 3월 개봉을 앞둔 박기복 감독의 중편영화 '밥' 스틸컷. 〈무당벌레필름 제공〉

박기복 감독, 5·18 연작 세번째 40여분 중편영화 '밥' 3월 개봉
한강 작가 '소년이 온다' 오마주 전작 '낙화잔향' 특별 상영회도

5·18은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질문이다. 무엇이 폭력이었는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그리고 그 기억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고인돌' 등을 연출하며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박기복 감독이 5·18 연작의 세 번째 작품 '밥'으로 3월 중순 관객과 만난다. 제작사 무당벌레필름은 신작 '밥'과 전작 '낙화잔향-꽃은 져도 향기는 남는다'를 묶은 특별 상영회를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와 전남 일대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 각지를 순회한다.

러닝타임 40여분의 중편영화인 '밥'은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오마주한 작품이다. 소설을 직접 재현하기보다 소설 속 인물 '동호'를 영화적 상상력으로 다시 불러내 오늘의 시간과 겹쳐 놓는다.

영화는 굶어 죽은 모녀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사찰을 찾은 여고생 무용수의 시점에서 시작한다. 추모의 춤을 올리던 그는 1980년 5월 희생된 소년 시민군의 영혼과 마주한다. 아직 소년의 얼굴을 간직한 그는 왜 죽어야 했는지 말하지 못한 채 떠난 존재다. 무용수는 소년의 시선을 따라 과거의 공간으로 이동하고, 현재의 시간 위로 1980년의 기억이 겹쳐진다.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대사가 없다는 점이다. 여고생 무용수와 소년, 계엄군 등 모든 인물이 말을 하지 않는다. 대신 눈빛과 몸짓, 구음(口音) 음악이 서사를 이끈다. 다. 관객은 구구절절한 설명 대신 배우들의 눈빛과 움직임을 통해 소년이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지를 짐작하게 된다. 박 감독은 "구호나 외침보다 침묵이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상징적 장치도 눈에 띈다. 영화 속 계엄군은 군복 대신 방역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는 '병균과 같은 시민은 제거해야 한다'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권력의 시선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또 '야차'로 형상화된 인물은 극단주의와 망각의 얼굴로, 기억을 방해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형식은 실험적이지만 국가폭력과 기억의 문제를 오늘의 감각으로 환기하려는 메시지는 비교적 또렷하다.

제목 '밥'은 영화의 핵심 상징이다. 작품 속에서 소년의 어머니는 밥을 짓는 인물로 등장하고, 주먹밥은 반복적으로 화면에 놓인다. 박 감독은 "모든 이념과 사상에 앞서는 것은 결국 밥, 곧 삶의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추상적 언어 대신 가장 일상적인 단어를 통해 5월을 다시 바라보겠다는 의도다.

이번 작품은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자산콘텐츠화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돼 제작됐다. 전남예술고 무용과 박소희, 연극과 윤성휘·노건우·박서연 등이 출연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으로 표현했다. 청소년 배우들의 참여는 기억을 다음 세대의 몸으로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주요 촬영지는 화순 이양 쌍봉사, 광주 희경루, 옛 적십자병원, 충장로 구도심 등 광주·전남의 역사적 공간이다. 특히 옛 적십자병원은 영화의 핵심 배경으로 등장한다. 1980년 5월의 기억이 남아있는 장소인 만큼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 공간이며 보존의 필요성도 함께 짚는다.

박 감독은 "5·18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 묻는 역사"라며 "그 정신이 헌법 전문에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억이 제도와 문장으로 남을 때 비로소 공동체의 약속이 된다"며 "영화가 그 약속을 다시 환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조대부고 미술반 동문들 작품전 열린다

'탑-호남 현대미술의 큰 줄기' 전 25일~3월3일 서울 G&J갤러리

호남의 현대미술 작가들은 저마다의 독창적인 기법과 감성으로 지역 미술의 텃밭을 일궈왔다. 오늘의 호남미술이 있기까지 서양화가 오지호 화백의 역할은 지대했다. 조선대 교수였던 오 화백은 초창기 조대부고 미술반원들에게 소묘와 수채화를 가르쳤는데 그로 인해 학생들의 실력은 날로 성장했다고 전해온다.

조대부고 미술반이 결성된 것은 지난 1959년. 당시 3학년 재학생이었던 오승윤, 1년 후배 송용·홍진삼, 2년 후배 강연균·최쌍중 등의 후배들과 함께 교내미전을 매개로 작품을 발표하면서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올해로 조대부고 미술반이 결성된 지 66주년이 된다. 현재에도 활발하게 창작을 하고 있을 만큼 조대부고 미술반 출신 화가들의 활동은 두드러진다.

66주년을 맞는 조대부고 미술반 출신 동문들이 전시를 열어 '화제'다. 오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서울 G & J 갤러리. 개막식은 25일 오후 5시에 있을 예정이다.

'탑-호남 현대미술의 큰 줄기'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전시에서는 호남 현대미술의 흐름과 형성, 성과 등을 다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 독창적 작품세계는 갤러리를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삶의 다양한 모습과 예술적 향기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작가는 44명이며, 모두 46점을 출품했다. 강연균, 김인화, 국중효, 박재만, 양원철, 이사범, 김대원, 임병남, 진원장, 남선용, 이세중, 최상호, 고영준, 류근배, 이영식, 박만수, 손영선, 정광주, 김강수, 설조환, 소선영, 이재호, 최재봉, 하대식, 박문수, 박종석, 이승기, 양병주, 윤석수, 김유섭, 김해성, 박윤오, 정순용, 구만채, 박 진, 신호재, 임근재, 허달용, 김종안, 강희주, 문형선 등이다.

탑회 광주회장 최재봉은 "조대부고 미술반은 1960년 광주지역의 다른 다른 고등학교 미술반원들과 함께 '청자학생미술회'(청자회) 결성을 주도했다. 이후 청자회 회원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며 "고교 졸업 후 한국 현대미술의 중심 작가로 성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시는 조대부고 미술동문인 탑회 회원들의 작품을 통해 호남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오승윤 작 '꽃'

진원장 작 '흐르는 시간'

서울에 이어 광주에서도 오는 3월 5일부터 31일까지 동구 동명동 수하갤러리에서 전시가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에서 배워요

전통문화예술강좌 수강생 모집…3월 17일부터 15주 과정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청소년을 비롯하여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26 상반기 전통문화예술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난해 하반기 수료식 및 발표회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강좌는 수강생의 수련도에 따라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대상에 따라 일반반과 청소년반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3월 17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1회, 총 15주 과정.

모집 분야는 '판소리 4강좌'(심청가, 흥보가), '판소리고법', '가야금병창'(판소리·민요), '전통음식 2강좌'(장 담그기 및 장을 활용한 계절음식·생활요리), '탱화', '미니 장구 만들기', '민화', '청소년 가야금병창 2강좌' 등 총 13개 강좌다. 각 강좌는 전통문화관 내 병창실·전수실·음식체험실·입석당에서 진행된다.

강사진은 광주광역시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판소리 중급반은 방성춘·이순자·김선이·최연자가 맡으며, 판소리고법은 양신승, 가야금병창은 성인반 문명자, 청소년반 황승옥·이영애가 담당한다. 또한 전통음식은 최영자·민경숙, 탱화는 송광무, 미니 장구 만들기는 이준수, 민화는 이성임 등 총 13명이다.

수강 신청은 25일부터 3월 11일까지이며, 강좌별 선착순 15~16명을 모집한다. 접수는 전통문화관 누리집과 전화로 가능하다. 수강료는 강좌당 10만 원(재료비 별도)이며, 연나이 65세 이상(1961년 출생 이전)은 2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통문화관 누리집 참조.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봄을 부르는 선율 '보헤미아의 봄'

광주시향 정기연주회, 3월 20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찬 기운이 물러나고 새순이 고개를 내미는 시기, 무대 위에도 봄의 기운이 오른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낭만주의 거장들의 음악으로 봄의 문을 연다.

광주시향은 오는 3월 20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404회 정기연주회 '보헤미아의 봄'을 연다.

상임지휘자 이병욱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차이콥스키와 드보르작의 작품을 중심으로 꾸며진다. 동유럽 정서가 깃든 두 작곡가의 음악을 통해 계절의 전환이 지닌 생동감을 풀어낸다.

1부에서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이 연주된다. 힘찬 관현악 서주로 시작해 피아노가 화려하게 응답하는 이 작품은 극적인 대비와 서정적 선율이 교차하는 낭만주의 협주곡의 대표작이다.

협연은 피아니스트 박종해가 맡는다. 그는 게자 안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 준우승,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 등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연주자로 협주곡 레퍼토리에서 안정된 기량과 집중력 있는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도 오케스트라와의 긴밀한 호흡 속에 작품의 구조와 감정을 또렷이 드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2부에서는 드보르작 교향곡 제8번이 이어진다. 고향 보헤미아의 자연에서 받은 인상을 토대로 완성된 이 곡은 밝고 목가적인 정서를 담고 있다. 민속적 색채가 배어 있는 선율과 경쾌한 리듬, 목관의 맑은 울림이 어우러지며 전원적 풍경을 그린다. 무거운 비극성을 앞세우기보다 생명력과 희망을 강조하는 점이 특징으로 봄을 앞둔 시기에 어울리는 레퍼토리다.

피아니스트 박종해.(c)SangwookLee

광주시향 최옥경 홍보담당은 "낭만주의 음악이 지닌 따뜻함과 에너지를 통해 시민들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힘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젊은 감각으로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국립광주박물관, 3월 10일까지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박물관도 홍보하고 콘텐츠 제작 경험도 하고.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최흥선)은 '제16기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메일 접수해야 하며 모집 인원은 10명.

이번 대학생 서포터즈는 젊은 감각으로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선정된 서포터즈는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전시를 비롯한 교육, 문화 행사를 직접 참관해 보고 느낀 점을 대학생 특유의 발랄하고 개성적인 감성으로 담아내면 된다. 월 1회 활동비 지급 외에도 우수한 활동을 한 이들에게는 시상도 한다.

또한 서포터즈들은 큐레이터 멘토링을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펼쳐지는 특별전 관람, 투어 등 다양한 역량강화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모두 10명으로 '글·사진' 부문 3명을 비롯해, '디자인'(3명), '영상'(4명)이다. 광주, 전남·북 소재 대학교 재학생으로 제한하며 활동 기간은 활동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다.

최흥선 관장은 "이번 서포터즈는 일반인들의 박물관에 대한 관심 환기와 아울러 온라인 소통을 확대하기 이해 마련됐다"며 "하루에만도 수많은 콘텐츠가 생산되는 시대에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문화기관인 박물관의 다양한 활동을 젊은 감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생산돼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서 참조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